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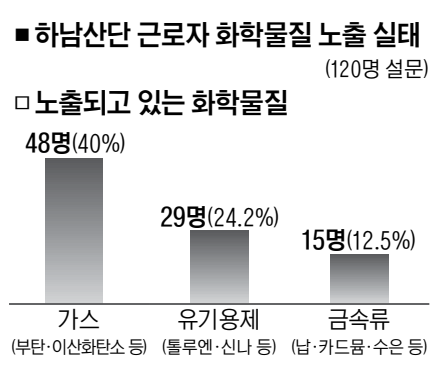
광주 하남산단에서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산단 근로자,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남산단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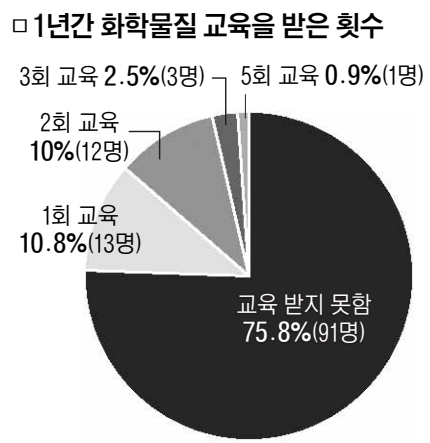
하남산단 인근 주민 10명 중 7명 “화학물질 오염 심각”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설문 기업의 대비책 불신 나타나 근로자 부탄·납 등에 노출 비정규직이 더 근무환경 취약

광주 하남산단 인근 주민 10명 중 7명이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작업 중 화학물질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답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장덕·하남·흑석·수완동)과 그 외 광산구 주민, 하남산단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25일~10월7일 주민 338명,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문항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6문항,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식 및 관심도 7문항,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 8문항, 유해화학물질 정책관련 11문항 등 총 32문항이다. 또 응답자 일반사항, 노동자 작업환경실태 7문항을 추가로 질문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현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현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주민 182명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 57명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해 설문대상자(338명) 중 71.9%가 유

□ 고용형태별 한 번도 교육받지 않은 응답자 비율

정규직	69.1%
비정규직	85%
단순노무직	90%

해화학물질을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하남산단 인근 주민(7.7%)이 일반 광산구 주민(6.7%)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부문별 유해화학물질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대기오염, 건강보건, 수질오염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유해화학물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와 ‘별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사람은 40명(36.9%)이었다. 이는 ‘대비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는 편이다’)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11.8%)보다 25.1%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주체별 유해화학물질 대비정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기업 및 산업체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 및 산업체·중앙정부(36.9%), 개인(36.7%), 광역시(36.6%), 자치구(34%), 시민단체(26.9%)순으로 드러났다.

◇“작업 중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 우려”=“화학물질 사용이 작업 중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남산단 근로자 120명 중 93명(77.5%)이 ‘많다’(‘많다’)와 ‘매우 많다’의 합계라고 응답했다. 경력 3년 미만 노동자(42명)의 83.3%와 단순노무직(11명)의 90.9%가 ‘영향이 많다’고 응답해

더욱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가스(부탄·이산화탄소 등) 40%(48명), 유기용제(톨루엔·신나·솔벤트류) 24.2%(29명), 금속류(납·카드뮴·수은 등) 12.5%(15명) 순으로 답변했다.

“화학물질 관련 교육을 지난 1년 동안 몇 회 받으셨습니까?”라는 설문에서는 ‘0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75.8%(9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1년간 1회 교육을 받은 사람은 13명, 2회는 12명, 3회는 3명 5회는 1명 뿐이었다. 또한 정규직의 경우 1년간 한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가 69.1%인 반면, 비정규직 85%, 단순노무직 90%, 3년 미만 노동자 88.1%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달 건조주의보 23일 발령 지난해보다 산발 5.6배 증가

을 11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산발이 5.6배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총 2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일)보다 약 4배, 최근 10년 평균(11.2일)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발은 총 50건이 발생해 지난해(9건)에 비해 5.6배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3배 높았다. 올해 11월 산발로 인한 산림 소실은 12.8ha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 13건, 경남 9건, 경기 8건, 강원 5건, 전남 4건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산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해 말까지 산발 642건이 발생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국민 10명 중 9명 ‘컵보증금제’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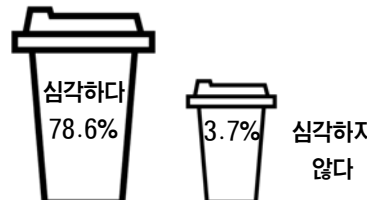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 90%가 일회용품 보증금제도(이하 컵보증금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찬성 71.4%·수용 18.5%)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의 1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진행된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쳤다.

■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만 20세 이상 2005명 설문·환경부>

컵보증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인 효과로는 ▲‘1회용품 사용감소’(45.5%) ▲‘자원의 재활용’(41.5%) ▲‘길거리 투기 방지’(12.2%)를 꼽았다.

최근 시민단체 등의 조사에서도 환경부 설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올해

7월 한국자원경제연구소가 커피전문점 이용객 21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85.7%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지난 9월에는 여성환경연대가 전국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응답자 81.9%가 컵보증금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한 응답자(전체 10%)들은 ‘제품가격 상승 우려’,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을 꼽았다.

환경부는 현재 1회용품의 사용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입구는 작지만 많이 파내는 벌레의 비법

도토리거위벌레 착안 드릴 특허

국립생태원이 도토리거위벌레의 동작에서 착안해 표면 입구는 작으면서도 내부 공간은 많이 파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한국기체연구원과 공동연구 끝에 도토리거위벌레 큰턱의 생태 동작을 모방한 ‘확공형 드릴’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확공형 드릴’은 ‘미세 구멍 뚫기와 구멍 넓히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구로, 도토리에 구멍을 뚫는 도토리거위벌레의 행동을 응용한 것이다.

막장벌레목에 속한 도토리거위벌레는 성충의 몸길이가 9~10mm며, 날개 길이와 비슷한 크기의 긴 주둥이를 갖고 있다. 긴 주둥이 끝에는 한쌍의 큰턱이 여러 개의 가위처럼 입체적으로 움직인다. 이 벌레는




도토리거위벌레

긴 주둥이의 큰턱을 이용해 딱딱한 도토리에 입구는 좁으면서 안은 호리병처럼 넓은 구멍을 판다.

‘확공형 드릴’은 일반 드릴의 회전 모터에 구멍 뚫는 칼날의 길이를 조절하는 수평방향 모터를 추가해 도토리거위벌레처럼 내부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천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